

2018년 3월 29일

제82회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안녕하십니까? 경영국장 강상재입니다.

제81회 이사회가 서면보고로 진행됨에 따라 2017년 11월 17일 이사회 이후 오랜만에 모시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이사회는 시장님 권한대행이신 이재철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전에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들 소개와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김병량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임인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김대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김보연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조승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이용규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박창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임승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회의 말미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겸 공연기획부장입니다. (人事)

이상훈 문화진흥국장 직무대행겸 문화사업부장입니다. (人事)

이상균 축제추진단장입니다. (人事)

고성영 감사실장입니다. (人事)

이성표 총무부장겸 경영기획부장 겸직입니다. (人事)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人事)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人事)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人事)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입니다. (人事)

먼저 이사회 진행에 앞서 시장님 권한대행이신 이재철부시장님 인사말씀을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부시장 이재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이 되었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심각한 기상상황으로, 이사님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임 시장님의 퇴임으로 성남시장 권한대행을 맡게되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

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성남시 문화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성남문화재단의 이사님들을 뵙고 인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사회 안건이 5건인데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공무원 간부교육 현장에 가야 하는 관계로 인사말씀을 드린 후 이사회 진행은 대표이사님께서 진행을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에 오래 있었는데, 문화예술 파트에서 3년 있었습니다. 문화파트에서 있으면서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 이해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많은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며,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큰 문화의전당을 합쳐 놓은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펼치다 보니 정체성의 어려움이 있는데,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금강 등 공연과 최근 인상적이었던게 신흥동, 태평동 공공창작소는 작지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을 매개로해서 구도심에서의 또다른 도시재생사업의 근거지가 될 수있겠다. 그런 것들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또 입주작가들을 보면서 작지만 콘텐츠가 탄탄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현재 기획하고 있고,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성남대표 페스티벌 추진단.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지역에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진 축제가 있는가 하면, 많은 도시에서 선업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실패를 한 사례들도 많이 봤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해외사례, 국내사례를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먼저 보여주셨는데, 성남이 가야할 길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승인과 결산, 감사를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서 해주셔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제언들을 이사님들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곧 성남의 예술, 문화 발전에 있어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조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사님들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남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문화나 예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재단 중심으로 많은 비약적 발전을 희망해봅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오늘 5개 안건이 있는데, 저를 대신해서 대표이사님을 괴롭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용규회계사님은 감사역할을 맡고있잖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문화정책과에서 살살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왔을 때 사전적 예방주사를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기대합니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2차, 3차에서는 식사도 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떠나게 된거를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사회가 훌륭한 안건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 소개는 앞서 드린 부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사님 중 현기영 이사님, 박은숙 이사님, 서해성 이사님, 장인주 이사님, 김영실 이사님, 임종률 이사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재단 간부직원 소개도 앞서 드린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회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보고,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은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 안건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심의는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 공무원 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연봉제 규정 중 개정규정(안), 주차장 운영세칙 규정 중 개정규정(안),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업무보고 2018년 본예산 조정,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한 논의 후 폐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원보고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17명의 이사님 중 총9명이 참석하셔서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대표이사 박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대표이사 三 打)

3. 국민의례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일동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일동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앞서 이재철 성남시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을 들은 관계로 바로 안건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안건심의

○ **대표이사 박명숙**

안건심의에 앞서 이사회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사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안건을 일괄 상정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 **대표이사 박명숙**

없으시면 심의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369호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
- 의안번호 제370호 공무직 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 의안번호 제371호 연봉제 규정 중 개정규정(안)
- 의안번호 제372호 주차장 운영세칙 규정 중 개정규정(안)
- 의안번호 제373호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이사 三 打)

○ **대표이사 박명숙**

경영국장은 의안번호 제369호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의안번호 제369호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성남시 감사관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규정 개정 사항으로 직원을 공개채용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

3쪽부터 5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의안번호 제369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69호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 三 打)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의안번호 제370호 공무직 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0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부양가족 직계 비속의 연령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공무직 관리규정 중 제56조(가족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 6쪽부터 8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의안번호 제370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70호 공무직 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 三 打)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의안번호 제371호 연봉제 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제2항제3호를 근거로 부양가족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연봉제규정 중 제29조(가족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 9쪽부터 11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의안번호 제371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71호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표이사 三 打)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의안번호 제372호 주차장 운영세칙 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 고객의 형평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차요금 개선을 위해 입점업체 등에 대한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외부강사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삭제하기 위해 주차장 운영세칙 중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대상차량)관련 [별표1] 및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제4호, 제6조 관련 [별표2]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의안번호 제372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임승민**

강사가 몇 분 정도 오나요? 1년에 총 몇회 정도 되나요?

○ **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카데미와 미디어센터에 1주일 평균 150개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강사는 강의 수에 맞춰 150명 정도 됩니다.

○ **이사 임승민**

2시간 정도 강의 한다고 하면 하루에 2천원을 내겠죠? 입점업체 고객한테 200원-400원 받고, 400원에서 800원 받는데, 이건 싸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강사분한테 꼭 받아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타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강사들에게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이사 조승문**

강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강사료 지급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비율제와 정액제로 진행되는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월별 수익 차이도 있습니다. 적게 받는 경우 월 4회 정도 강의 하는 경우 적은 경우 한달에 40만원 많은 경우 200-300만원 정도로 차이들이 있습니다.

○ **이사 임인출**

강사들이 어려운데요, 예술의전당과 비교 한다고 하셨는데, 강사료가 다른데와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요? 성남 일반 주민자치센터 경우 굉장히 열악합니다.

○ **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강사료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다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한 강사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재단은 문화예술기관으로 아르떼나 행안부 기준에 강사비 기준을 따르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보다 조금 높고, 강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강사료는 강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이사 임인출**

강사료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비교되는 예술의 전당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강사료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쪽은 우리처럼 강좌를 많이 하지 않고, 감상강좌나 CEO관련 강좌 등 특화된 강좌를 진행하기 때문에 감상강좌의 경우 우리처럼 비율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사 임인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강사에게 부담할 수도 있겠으나 성남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강사들인데 저는 크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기분 좋게, 마음편하게 강사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일괄적으로 2천원을 내고 있는데, 강사분들은 지금까지 면제를 하다보니 이런부분에 항의도 있고,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을 봤을 때도 아카데미수강생들이 1천원에서 2천원 주차요금을 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전시 보러오는 분들도 2천원씩 받고 있는데, 강사분들은 강사료도 받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이사 김대진**

강사료 지급하는 사람 중에 10만원 미만이 몇퍼센트나 되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임이사님 말씀처럼 강사료를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 미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묻는거임

○ **문화사업부장 이상훈**

1일 평균기준 10만원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은 비율제 강사 중 인원이 아주 적은 강사들로 해서 전체 강사 중 5% 미만입니다. 하루 평균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정액제의 경우 최소 13만원을 받고, 비율제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다른 경우 2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사 김대진**

갑자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카드를 지급하

면 어때요?

○ **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주차는 카드제가 아니고 강사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고, 앞으로도 2천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사 김병량**

이 문제는 수입차원이 아니라 대학도 월 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차량없이 오는 사람과 학교에서 같이 운영하냐고 해서 차를 가져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교수들도 만원씩 내고 있고, 강사들도 전부 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이사 김대진**

그럼 강사들한테 주차료를 받아 연수입이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지금 정확히는 어렵고 연수입이 대략 천만원 정도 내외 일 것 같습니다.

○ **이사 임인출**

강사가 비정규직이고 또 강사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영향력이 있는데, 재단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체적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 **이사 김보연**

주차료는 받고 강사료를 올려달라고 하세요.

○ **이사 임인출**

알겠습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72호 주차장 운영세칙 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 三 打)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의안번호 제373호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제공된 결산보고서 8쪽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남문화재단의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82억8천6백8십9만5천2백3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77억3백3십4만4천1백7십원, 세출결산액은 256억8천3십3만7천5십3원으로 반납액 3백7십9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0억2천3백만6천7백3십8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9쪽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77억3백3십4만4천1백7십원으로 달성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책사업수입에서 4억7천7백5십7만7천1백2십7원 결손(15%) 대관사업수입에서 1억1천7백8십4만1천5백8십원 결손(10%) 시설운영수입에서 6천4백9십5만9천3백6십원 결손(7%)되었으나, 그 외수입에서 목표대비 131%를 달성하여 세입결손은 5억8천3백5십5만1천3십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0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약 9%인 2십6억6백5십5만8천1백5십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10억8천1백9십5만1천8백6십5원, 정책사업경비, 예비비운영이 14억1천1백만5천2백2원, 야외공연장운영이 6천3백6십만1천8십3원 불용 되었습니다.

2017년 회계기간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는 삼덕회계법인 김준석 공인회계사가 수행하였고,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용규 공인회계사의 내부회계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한 결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단 감사이신 이용규 공인회계사님의 감사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이용규**

본 감사는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성남문화재단의 제14기 2017.1.1~12.31까지 사업년도의 회계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회계감사를 위해서 성남시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인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감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업무감사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과 그 내용의 검토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성남문화재단의 제14기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황과 결산 결과를 성남문화재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사업연도 중 성남문화재단의 운영과 업무에서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예외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의안번호 제373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73호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 三 打)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기타사항으로 주요안건에 대한 3건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는 2018년 1월 2일자 성남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쪽입니다.

신임 대표이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남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축제추진단이 신설되었고, 감사실을 신설 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직속기구인 축제추진단과 감사실이 조직됨에 따라 홍보미디어실을 경영국 산하의 홍보미디어부로 변경하여 타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조직 균형을 맞추고, 업무내용에 따라 각 부서별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고객지원부를 폐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 2018년 1월 2일자로 1실 3국 10부에서 1단 1실 3국 10부로 개편되었

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예산이 성남시 의회를 통해 수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쪽입니다.

2018년도 이사회 의결 예산은 287억 158만원이었으나 이중 1억 7천 5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중앙지하상가 아트스트리트조성 비용 7천5백만원, 재단미술작품 구입 5천만원, 언론 등 대외홍보 추진 비용 2천만원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명칭 변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문화복지위원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2017년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미술관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및 재단의견을 대표이사,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드렸고, 오늘 이사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까지 수렴하여 변경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사 김병량**

의견수렴 대상이 누구예요?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공간이 있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분이 지금 지적하신 그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이사 김병량**

직원만해도 수십명이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의견인가요?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수렴한 의견과 크게 다름이 없었고요, 큐브미술관의 인지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름을 철수라고 부르다가 철수라는 이름이 호적에 등록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왕에 큐브라는 이름이 처음에 정해질 때도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해진 것이고, 또 기왕에 생겨난 지명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인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이사 김병량**

우리 이사님들께도 즉석에서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죠.

○ 이사 김보연

박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전시하셨던 분들도 큐브미술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큐브미술관의 큐브자 큐브미술관자태가 빠져버리면 그 전에 전시하셨던 분들이 허공에 떠요. 무슨 말이나면은 그 분의 전시 역사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호족이나 족보에 있었는데, 이름이 바뀐다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시 될 수 있고, 또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하면 큐브라는 것은 어떤 물리학적 용어로 미학적 용어로 큐브미술관 자체가 현재 등록한 거고 성남이라는 것도 우리 성남지역에서는 당연한거고. 제 생각에는 기존의 이름은 지금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이 명칭인데, 조금 길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미술관 제안명칭 중에 나온게 성남큐브미술관이 짝막하고 어떤가 싶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성남미협 생각이기도 합니다. 성남미술협회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끼리 이야기 나눠보니 성남의 아이덴티티와 역사를 갖은 큐브라는 이름이 들어간 성남큐브미술관이 임팩트 있게 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2종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얼마전에 오산문화재단이 시립미술관으로 등록을 했고, 수원시립미술관이 1종 미술관으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부산시립미술관이 6월 등록을 하는데, 최근 수집 심의가 끝나서 100점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91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9점이 더 보강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게 1종으로 공립 미술관 등록을 할 수 있는 디딤돌로 이번에 명칭변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면 1종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건립이되는 성남시립미술관의 기능을 어느정도 이야기하면서 대비하고, 자연스럽게 시립미술관으로 저희 기능이 넘어가고 저희는 아트센터 내의 미술관으로 어떤 기능을 조금 더 열린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박창훈

명칭 바꾸는 부분을 우리 재단에서 구조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주문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수렴 폭을 넓혀서 의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가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탄천운동장도 탄천운동장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용역까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도 안되는 설문으로 이렇다라고 의회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니 좀 더 폭 넓게 의견 수렴도 하고, 지금 김보연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미술계에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의회 대응도 하고, 또 필요한 명칭으로 가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사 김보연**

또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홍보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 찾아오는 성남아트센터라는 사이트를 보고 찾아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에게 메일을 보내서 하는 시스템을 하면 좋겠다.

성남미협만 해도 각 개인의 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금 등 어떤 개인에게 알려 줄 것이 있으면, 바로 개일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왜 여기 아트센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개인이 일일이 찾아와서 봐야 합니까. 그럼 잘 안찾아오죠.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해야 한다니깐요. 예를들면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결과를 당신은 예상하십니까? 어떠한 명칭이 좋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개인적으로 간다고 하면,

1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했을거고, 또 문화에 관계되는 성남의 미협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계시고, 또 아트센터 자체도 여러 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에게도 참여조사를 해보고 또 어떤 공연을 하던 전시를 하던 그분들에게 각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이들 보고 유용하게 즐기지 않겠습니까?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 **이사 임인출**

이상균국장님이 축제추진단장님으로 가셨네요.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축제추진단장 이상균**

네. 대표님께서 새롭게 취임하시고, 대표님 임기동안에 성남에서 성남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우수한 축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시겠다고 설명하셨고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도 새롭게 신설을 하고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적임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쪽으로 보내신 것 같고요, 1년여 남짓 남은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취합을 하고 지역 예술가분들과 협조하면서 대표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 **이사 임인출**

알겠습니다.

○ **이사 김대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사회 와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님 임기가 2년입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임기연장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문화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7월이면 새집행부가 구성이되는데, 문화재단이 변해야되지 않아요?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지금 대표와 국장 계약직 임원진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정관뿐만이 아니라 의회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원여러분들 찾아 뵙고, 많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6기에서는 결정을 못내렸고요 다음 의회에서 아마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기간연장이나 혹은 의회 동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김대진**

지방선거가 얼마 안남았어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는데, 그 전에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갖고 새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3년 하는 곳도 있고, 다르다. 정관은 바꾸면 되고, 지금부터 이것을 계획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와서 업무하려고 하면 끝나고, 이거를 자꾸 되풀이하면 안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에 계획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네 알겠습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납니다. 우리가 국제국내 할 것 없이 큰 행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내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제무대에 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있어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주셔서.

○ **이사 김대진**

제가 문화원장이 된지 벌써 4년이 되었는데, 이제 뭔가를 알겠는데 대표이사님 임기가 2년인데 임기 말아 뭐 하다보면 끝이에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바뀌어야 합니다.

○ **이사 조승문**

문화원원장님 임기는 몇 년이에요?

○ **이사 김대진**

4년이에요. 이제 뭐를 알겠더라고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임기2년 갖고 안됩니다. 계획하고 추진하세요.

○ **대표이사 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三 打)

○ **司會 경영국장 강상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리를 이동하여 간담회 및 중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장소는 오페라하우스 지하일층 바람소리 입니다.